



그분과 함께하는 이야기 (대만5호)

이섬김, 황사랑, 은우, 성안, 세희

28호 2020년 8월 4일



전화	070-5124-2529	후원	KEB하나은행 9900-147-05200 예금주: KPM 이섬김
이메일	justfaith74@naver.com		

사진1, 담임목사님이 새가족 꾸오 성도님께 새가족10주 수료장과 선물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사진2,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에 교회근처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이곳 대만도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대만은 비가 많이 오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여름에는 하루에 한번 아니면 이틀에 한번 씩 비가 내려 줘서 온도를 조금 낮추어 줍니다. 낮에는 햇볕이 쨍쨍하다가도 오후가 되면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렸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맑아집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아도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닙니다. 한국에는 최근에 홍수 피해가 크게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도 더 이상 큰 피해 없이 이번 여름이 지나가길 소원합니다.

대만의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전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선교지에서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한 곳도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최근 계속해서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거나 한 자리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나 은행 같은 시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일상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전의 모든 활동을 재기했고 오히려 없던 기도회 모임도 새롭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드려지는 찬양전도예배도 6월과 7월에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두 번을 인도했고 다음 부터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제가 돌아가며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담임목사님이 새롭게 성경공부식 기도회를 시작하셨는데 아직 극소수의 성도님들만 참석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좋은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성도님들을 보며 기쁨을 누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하고 주일에 유일하게 진행되었던 과정은 새가족 성경공부 모임이었습니다. 한 명의 새가족과 4명의 기존 성도님들이 10주의 과정을 마쳤습니다.(4명 중 두 명의 기존 성도님들은 평일에 일주일에 세 번씩 따로 모임을 해서 함께 수료했습니다.) 한 과, 한 과 새가족교재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새가족이신 꾸오 성도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와 변화를 주시고 계십니다. 한번은 멀리 까오슝이라는 남부도시에 사시는 어머니가 강한 고통을 수반하는 피부병(증상을 들어 보

있을 때 대상포진인 것 같습니다)에 걸리셨는데 병원에 가셔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중에 구오 성도님이 전화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한 후 다음 날 병이 낫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직장 속에서 직장의 아랫 직원을 향한 비판적인 말과 태도가 많이 바뀌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다른 사람이 느낄 정도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아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도를 위해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미장원에서 머리를 깎는 중에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부끄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버지의 교통사고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 마음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새가족 공부 과정 속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경험하게 되는 도전과 고난이 있음을 배운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구오 성도님을 좋은 군사로 훈련시켜 가고 계신다고 격려와 축복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향한 민감함을 주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반응 하며 그동안 아버지와의 서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는 고백도 듣게 하십니다. 구오 성도의 이런 변화를 보며 저와 성도님들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새가족 10주 과정이 끝난 후 주일과 평일에 다른 제자훈련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주중에 세 번 하고 있는 빌립보서 공부는 교회 성도님 한 분과 하고 있는데 담임목사님도 함께 참석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훈련하게 하신 성경묵상 방법을 가르치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갈 때 바울이 감옥속에서 경험했던 기쁨과 복음의 감격과 열정이 저에게 먼저 은혜로 다가오고 그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도님들의 고백이 바뀌고 예배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사역자에게 허락되어진 참 기쁨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전도자로 세워갑니다.

새가족 성경공부과정과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두 분에게 저와 함께 노방전도를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두 분이 다 긍정적인 응답을 주셨고 한 분이 매주 금요일 오후에 노방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노방 전도를 한 첫 날 하나님은 한 형제가 영접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교회로 인도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리의 여러 명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교회에서 자체 제작한 전도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도 담임목사님과 함께 노방 전도를 시작했는데 첫날 교회 근처 빵집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아내되시는 할머니는 3년전에 중풍이 들어 움직이지 못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우리가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금요일에 함께 전도하는 성도님과 함께 방문해서 다시 예수님을 전하고 약속을 잡은 후 그 다음 금요일은 담임목사님도 함께 동참해서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할아버지 아내 되시는 할머니를 위해 찬양하고(기타와 바이올린을 준비해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저와 계속해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노방전도를 나가고 있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복음은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님이 분명해 지기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전도자로 세우며 그렇게 얻은 열매를 또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또 전도자로 세워나가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동역해주시는 담임목사님과 성도님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루는 책을 제본할 일이 있어 타이베이 대학(대만의 서울대학과 같은 학교)에 갑니다, 학교안 도서관에 있는 복사점에 제본을 맡겨 놓고 기다리는 동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대학생에게 말을 걸고 저의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학생은 교회에 두 달 정도 다녀 보았던 친구인데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해 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친구였습니다, 아쉽게도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꽤 오랜시간 대화를 나누며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은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1년동안 대만 교회를 적응하며 조금씩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대학생들에 대한 부담도 주십니다, 한 주에 한번 혹은 두 번 대학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는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적을 뿐 아니라 청년들이 거의 없는데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라도 청년대학생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 대학생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선교의 거룩한 열망을 가진 자로 키워내는 대학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큰 꿈(하나님이 하시면 못 할 것이 없기에)도 꾸어 봅니다, 아직은 아무 것도 없지만 저에게 그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리라 믿고 또 한 걸음을 때려 합니다,

대만에서 지금까지 4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번 제가 사역하는 남향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부탁 받고 오래전부터 어린이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었던 소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는 소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께 부탁하고 처음 온세대 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드러지는 예배가 오늘 날 죽어가는 어린이 사역의 대안이라고 믿기에 두 달에 한번 저에게 주어지는 남향교회 설교를 이런 형식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믿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망가운데 감당하려고 합니다,

또 저번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이전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 두분이 계신데 직장 생활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시는데 그 중 한 분이 주중에 소그룹 말씀 모임을 인도해 주실 수 있냐는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저와 함께 돌아가며 섬길 수 있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마음 속에 집 근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도 있었는데 이런 요청을 받으면서 함께 하기로 승낙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그리고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려 합니다, 때때로 시작도 끝도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이 하나님이 저에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믿음의 길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향한 소원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아버지는 췌장암 수술 후 간 쪽에 여러개의 작은 암들이 발견되어 항암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항암치료가 진행될수록 몸이 점점 힘들어지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번의 검사결과 처음보다 암의 크기가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간호하시는 어머니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름을 맞아 아내 황사랑선교사와 아이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큰 아이 은우는 보충수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9월 달에 있을 학교 음악회에 참석하게 되어(대만 직업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있고 학교밴드에서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클래식 드럼을 한 곡 연주하게 됩니다.) 방학 없는 방학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는 학교 학급 반장이 되었습니다.

둘째 성안이는 같은 학교 연기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연극 수업에서 자주 중국어 발음에 대한 지적을 자주 받아 고민이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당연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보다 학업에 있어 진보가 있습니다.

막내 세희는 방학을 하면서 이번 학기 많은 학업의 진보가 있었다는 상을 받았지만 중국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섬기는 남향교회의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며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변화되며 은혜를 나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도록(성경공부와 제자훈련사역을 위해)
-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에 있는 노방전도 시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 전도자로 세워지며 열매 맺도록
- 대학교 대학생 사역에 문을 열어 주시고 동역자도 붙여 주셔서 청년들을 일으키도록
- 교회 외 소그룹 모임에도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영혼들이 회복되고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 두 달에 한번 남향교회에서 설교할 때 온 세대가 함께 은혜 받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 저희 아버지가 항암치료를 잘 견디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시도록
- 아이들이 학업에서 진보가 있게 하시며 온 가족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